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노인가구의 주거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derly Households' Housing Needs for Aging in Places

이광수*
Lee, Kwang-Soo

박수빈**
Park, Soo-Been

Abstract

As society increasingly ages, maintaining an independent lifestyle at home becomes an important issue for older peopl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old people's housing needs for maintaining an independent lifestyle despite their health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A total of 438 residents voluntarily took part in a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the quota sampling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grouped according to age (60-64, 65-69, 70-74, and over 75), gender (male and female), and house type (apartment houses and ot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enior residents are mostly within a non occupational, low income, and low subjective living status. (2)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residence and hope to manage the rest of their life in the same place. (3) Three out of five residents prefer the apartment housing type to other types of housing. The preferred dwelling size, number of rooms, and preference for use of an extra room all varied depending on gender and housing type as well as whether they were a couple or living alone. (4) The older residents have a higher need for a safety system than do the younger residents. Female residents pay more attention to convenience while male residents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The non-apartment residents require more modification to fundamental facilities such as a heating and ventilation system, wind protection, and additional storage than do the apartment residents. This study has thoroughly analyzed reques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asic qualities of the elderly households.

Keywords : elderly households, needs, satisfaction, preferences, modification, age, sex, housing type

주요어 : 노인가구, 요구, 만족도, 선호, 개조요구, 연령, 성별, 주택유형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노년기 거주자는 중·장년기 거주자와 비교하여 생활 영역이 축소되고 주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일상생활에서 주거환경의 영향은 커지고 주거환경을 통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는 생활만족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olant, 1982). 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시력, 청력 등 감각기관의 기능쇠퇴, 또는 운동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중·장년 시기에는 불편하게 느끼지 못했던 주택의 구조나 규모, 시설, 생활용품 등이 장애로 대두된다. 신체적인 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적 조건도 열악하므로 거주 조건이 쉽게 악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전용시설이나 계획주거로 이주하기보다 지금까지 거주하던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권오정, 1996).

노인 거주자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시설주거 또는 복

지시설 중심의 노인행태 연구에서 시작되어 3세대 가족을 위한 주거계획 등을 통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인 거주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후상황에 따른 노인계획주거의 방향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오찬욱, 1990; 이태경, 2003). 최근에는 노인 거주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되는 주거이동보다는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의 개선이나 개조 방향을 모색하려는 연구(박수빈, 2007; 한국주거학회·건설교통부, 2005, 2007)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지속적인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 노인가구의 주거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주거요구는 주거만족도, 주거선호, 주거개조요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연령, 성별, 주택형태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 노인부양에 대한 우려, 그리고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희원(주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
**정희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및 노인생활환경연구소 부교수, 이학박사

본 연구의 일부는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되었음.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문헌연구는 노인의 주거요구 특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조사연구의 도구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는 노인가구의 주거요구를 파악하고 일반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방법으로 구조적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설문에 사용한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거선호(주택유형, 주택규모, 실의 수, 여유실 용도), 주택개조요구(거실, 침실, 주방, 욕실, 현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연구의 대상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¹⁾으로 하고, 조사대상을 연령(60~64세, 65~70세, 70~74세, 75세 이상), 성별, 주택유형(아파트, 비아파트²⁾)에 따라 16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내에서 각 표본이 25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표집하였다. 이는 노화의 정도와 성별에 의한 주거요구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예비노인이나 노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조사도구의 내용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예비조사(2008. 1. 14-2. 28)와 실증분석을 위한 본 조사(2008. 3. 10-5. 29)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훈련된 조사보조원들이 부산의 P대학교와 K대학교 소재의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고, 노인들이 직접 설문지에 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설문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84부를 회수하고, 이중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한 4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그리고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집단의 구성 N(명)

연령(세)		60~64	65~70	70~74	75 이상	전 체
주택유형	성별					
아파트	남	25	24	27	32	108
	여	31	25	25	25	106
비아파트	남	25	25	25	26	101
	여	27	39	30	24	123
전 체		111	113	107	107	438

II. 노인 가구의 주거요구

노인 거주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로 일상생활능력

1) 조사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혜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 장애의 발생 시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58.1%가 6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2)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조승호, 1993) 본 연구에서는 주택유형을 크게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을 비아파트라고 명명한다.

이 저하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생활해 오던 주거환경에서의 장애를 경험한다. 일상생활영역 또한 주거를 중심으로 축소됨으로써 주거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주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노인 거주자가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요구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개선이 필요하다.

1. 노인가구의 지속적 거주(Aging in place)

과거에는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된 주거환경이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으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이 익숙한 주거와 주변 환경 내에서 거주하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거주(Aging in place)’의 개념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요구 분석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 대책마련의 방향을 주거의 ‘안전성’, ‘연속성’, ‘건강성’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다³⁾. 우선 노인 거주자를 위한 주거에서는 거주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주택의 구조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태어나고 성장하며 오랫동안 생활하여 왔던 지역과 주택을 벗어나 노후에 전혀 다른 주거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생활해 왔던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의 연속성은 ‘주거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현재의 주택이 노화로 인한 거주자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면, 계획주거나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령자 주거실태를 보면, 낡고 협소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 내부의 채광, 통풍, 소음 등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적절한 휴양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령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의 ‘안전성’, ‘연속성’, 그리고 ‘건강성’은 지속적 거주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기존 주택의 개선방향으로 보인다.

2.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란 주택 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로서, 평가의 결과는 거주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조절과 적응능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주자가 주거 요구 충족

3) 대한주택공사(2006), 고령사회 주거지침 종합대책.

정도를 주택에 대한 기대감, 열망, 경험 등에 비추어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주거상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측정 단위가 된다⁴⁾. 따라서 주거만족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이미지와 현재의 주거환경과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에 의해 측정되고⁵⁾, 주거만족도의 측정은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거주 경험을 통하여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침과 통찰력을 제시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통계청, 2004)⁶⁾에서는 36.6%가 불만족하였고, 주택규모(‘주택 규모가 작아서’, 37.2%)와 주택의 노후도(‘주택이 낡아서’, 34.1%)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⁷⁾에서는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다(70.8%)’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노후 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다(27.6%)’와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부족하다(1.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노인 거주자는 현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노화나 건강의 악화에 대비한 주거공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거선호

주거선호는 거주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방법의 하나이다.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떤 주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 거주자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는 노인 또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화에 따른 주거선호특성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선호를 예측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유형 선호에 대한 조사(통계청, 2004)에서는 단독주택(73.7%)을 아파트(24.4%)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⁸⁾에서는 선호 주택규모로 20평형대(26.0%)와 30평형대(39.8%)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는 현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⁹⁾.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⁰⁾에서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65세 이상의

경우 20평 미만 주택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대(45-54세, 55-64세)보다 높았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을 부부동거상태 및 건강상태로 보고, 4가지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미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¹¹⁾.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¹²⁾가 있는 반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빌라, 저층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¹³⁾. 두 연구 모두 주택유형과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가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부부동거시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고, 혼자거주시보다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노년기의 주거선호는 조사대상, 조사시기 또는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변인의 영향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노인과 중·장년층은 주거경험이 다르므로 선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가 변할 수도 있다. 조사 시기에 따라 아파트의 공급유이나 시설 및 설비의 차이가 거주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거주자의 주거선호는 노년기 상황에 따른 예측만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연령, 현재의 주거, 그리고 배우자 동거여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주거개조

노년기에는 중·장년기에 불편하게 느끼지 못했던 주택의 구조나 규모, 또는 시설이 더 이상 편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때, 주택 내에서 구체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상황과 그 대처방안으로 나타나는 주거조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거주자에게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주거개조는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거조절행위(home modification)로 특징지어진다. 주거조절행위는 주거이동과 주거개조로 구분된다(Morris & Winter, 1978). 주거이동은 정신적 안정 측면에서 익숙한 지역에서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발생이 야기되며, 거시적으로 이주로 인한 자원 및 건축 재료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거이동보다는 정착을 원하고¹⁴⁾,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높을수록 이동성보다는 정착성이

4) 차성란(1985),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5) 박인영 외(2003),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11)에서 재인용.

6) 노인가구의 주택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10.1%, ‘약간 만족’-20.2%, ‘보통’-33.2%, ‘약간 불만족’-28.3%, ‘매우 불만족’-8.3%였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4).

7) 오현숙(2003), 경로당 이용 만족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4.

8) 이지숙(2004), 대전시 거주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6).

9) 김태일(1995), 유료 노인 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0).

10) 박수빈(2007), 중·노년층의 요구 분석에 의한 노년기 주거 디자인의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5).

11) 노년기 4가지 상황: ① 부부동거/건강시, ② 부부동거/건강악화시, ③ 혼자거주/건강시, ④ 혼자거주/건강악화시, 오찬옥(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12) 오찬옥, 앞의 책, pp. 72-73.

13) 이태경(2004), 예비노인의 노후 상황별 노인주거단지 선호에 관한 연구, pp. 51-52.

14) 예종희(1997), 주택 개조 경험과 주택 개조 계획,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높은 것¹⁵⁾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경우 주거개조를 통한 주거조절행위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거개조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안전을 증진시키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단순한 개조나 장비의 설치, 물품의 구입 등을 통해 자립적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것(Pynoos, Cohen, Davis, Bernhardt, Struyk, 1987; White, 1991)이 된다.

노인가구의 주거개조는 안정성, 자립성, 편리성, 쾌적성을 목표로 하고, 거주특성에 따라 기초기준, 유도기준, 최적기준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기초기준은 사고방지와 같이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단차 줄이기, 계단난간 설치,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 시공 등이 있다. 유도기준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작이 용이한 설비의 설치, 적정 높이를 고려한 설비의 설치나 추가설비 확보 등이 있다. 최적기준은 거주성능 향상에 관련된 것으로 마감재 교체, 콘센트 추가, 보조 난방기구 설치, 수납공간 추가 등이 그 예이다.

노인가구의 주거개조행위에는 개인적 특성, 현재 거주 특성, 그리고 지원 및 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¹⁷⁾.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거주 특성으로는 주택규모와 주택 내 사고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많고, 남성인 거주자가 주거개조 실행 빈도가 높고, 월평균 수입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개조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주택규모가 큰 가구가 주거개조 실행빈도는 낮은 반면, 주거개조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주택 내 사고경험이 많을수록 주거개조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경제적 투자보다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겠다는 인식이 주거개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거주자 연령 및 성별과 거주 특성으로 주거유형을 중심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 특성

조사대상의 특성은 가구특성과 거주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표 2>.

조사대상의 가구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학력은 '고졸 이하'가 69.2%, '대졸 이상'이 30.9%이고,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86.5%로 매우 높았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26.3%, '200-300만원 미만'이 20.1% 이었다. 소득원은 '자녀의 지원(용돈)'이 31.8%로 가장 높았고, '연금(26.7%)', '집세나 이자소득(23.8%)'순이었다. 조사 가구가 느끼는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이 41.3%로 가장 높고, '중하'가 30.1%, 그리고 '하'가 19.0%순이었다.

조사대상의 거주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주택유형은 표집방법의 영향으로 '아파트'가 48.9%, '단독주택'이 32.7%, 그리고 '연립주택/빌라'가 11.6%순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 각각 50% 내외로 분포하였다. 주택규모는 '99-132 m²(30-39평)(29.7%)'과 '66-99 m²(20-29평)(28.1%)'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의 소유상태는 '자가(88.4%)'의 비율이 매우 높고, '부부만 거주'가 52.3%, '자녀와 거주(2대 동거)', '혼자 거주(독거)'가 각각 21.0%, 20.6%이었다. 방의 개수는 '3개'의 비율이 48.0%로 가장 높고, '2개'가 22.8%, '4개'가 19.0%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가구는 무직의 비율이 매우 높고,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의 평균¹⁸⁾에 미치지 못하며, 주 수입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구분	N(%)		
연령	60-64세	111(25.4)	주택 유형	아파트	214(48.9)
	65-69세	113(25.8)		단독주택	143(32.7)
	70-74세	107(24.4)		연립주택/빌라	51(11.6)
	75세 이상	107(24.4)		다세대주택	27(6.2)
	합계	438(100.0)		기타	3(0.6)
성별	남자	209(47.7)	합계	438(100.0)	
	여자	229(52.3)	주택 규모	66 m ² 미만	80(18.3)
	합계	438(100.0)		66-99 m ²	123(28.0)
학력	고졸 이하	303(69.2)		99-132 m ²	130(29.7)
	대졸 이상	135(30.8)		132-165 m ²	57(13.0)
	합계	438(100.0)		165 m ² 이상	48(11.0)
현재 직업	무직	379(86.5)	합계	438(100.0)	
	자영업	37(8.5)	소유 상태	자가	387(88.4)
	기타	22(5.0)		전세	36(8.2)
합계	438(100.0)	월세		11(2.5)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4(35.2)		기타	4(0.9)
	100-200만원	115(26.3)		합계	438(100.0)
	200-300만원	88(20.0)	가구 구성	혼자거주	90(20.6)
	300만원 이상	81(18.5)		부부거주	229(52.3)
	합계	438(100.0)		2대동거	94(21.4)
소득원	경제활동	103(17.6)		3대동거	25(5.7)
	자녀지원	186(31.8)		합계	438(100.0)
	집세/이자소득	139(23.8)	방의 개수	1	26(5.9)
연금	156(26.7)	2		100(22.8)	
합계	584(100.0)	3		210(48.0)	
주관적 생활 수준	하	83(19.0)		4개이상	102(23.3)
	중하	132(30.1)		합계	438(100.0)
	중	181(41.3)	욕실 개수	0	7(1.6)
	중상	32(7.3)		1	265(60.5)
	상	10(2.3)		2	166(37.9)
합계	438(100.0)	합계	438(100.0)		

15) 최미라(1995), 주거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8).

16)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2005),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17) 권오정(1996), 서울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예술, 19(1).

원이 자녀의 지원 및 용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부만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1세대 가구가 약 3/4에 이르고, 중소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며, 자가 비율이 높아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2.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현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택에서 계속 거주 여부, 그리고 각 주거공간별 만족도에 대하여 5점 척도¹⁹⁾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 노인 거주자의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M=3.2, S.D.=0.9)'와 '현 주택에서 계속적 거주 희망(M=3.2, S.D.=1.0)'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전반적 주거만족도(아파트: M=3.3 S.D.=0.8, 비아파트: M=3.0, S.D.=0.9)와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 희망(아파트: M=3.4, S.D.=0.9, 비아파트: M=3.0, S.D.=1.0) 모두 아파트 거주가구의 평균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평균보다 높았다(p<0.00).

주거공간을 거실(마루), 침실(방), 식사공간, 주방(부엌의 조리 공간), 화장실(변기/세면기만 있음), 다용도실, 욕실, 베란다, 그리고 현관의 9개 구분하여 주택의 각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그림 1>. 거실(마루)과 침실(방)에 대한 평균이 각각 3.4와 3.3으로 다른 공간과 비교하여 높고, 다용도실과 욕실에 대한 평균이 각각 2.9와 2.8로 다른 공간과 비교하여 낮았다.

연령에 따라 '주방(p<0.05)'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만족함을 파악하였다. 성별에 따라 '현관(p<0.05)'과 '주방(p<0.05)'의 평균이 차이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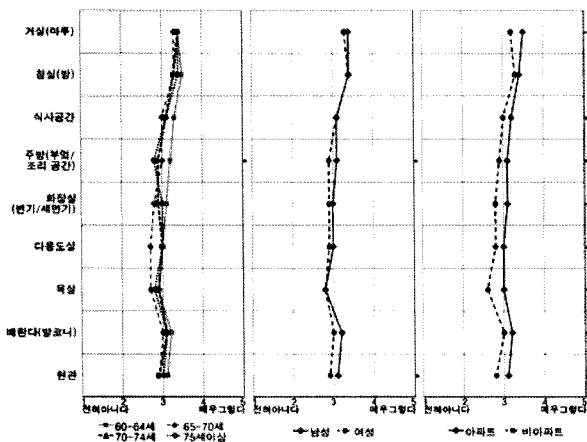


그림 1. 주택 내 공간별 만족도 (*p<0.05 **p<0.01 ***p<0.00)

여, 여성의 평균(각 2.9)이 남성의 평균(각 3.1)보다 낮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각 공간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침실(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대하여 아파트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평균이 아파트 거주가구보다 낮았다.

2. 주거선호

주거선호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그리고 여유실 사용에 대한 요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1) 주택유형

선호하는 주택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아파트가 61.2%,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 38.8%로서 아파트 거주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택유형과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표 3>, 현재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파트 거주를 더 선호하였다.

각 주택유형의 선호 이유는 주거경험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의 주택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다<표 4>, 아파트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현재의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편리하다(20.7, 22.5%)', '따뜻하다(14.3, 18.8%)', '안전하다(13.9, 14.9%)', 그리고 '유지/관리가 쉽다(아파트: 10.6%, 비아파트: 10.2%)'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

표 3. 선호하는 주택유형

표 3. 선호하는 주택유형					N(%)	
성별	선호유형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χ ²
	현재유형	아파트				
남자	아파트	76(70.4)	32(29.6)	108(100.0)	17.6***	
	비아파트	42(41.6)	59(58.4)	101(100.0)		
	전체	118(56.5)	91(43.5)	209(100.0)		
여자	아파트	88(83.0)	18(17.0)	106(100.0)	26.8***	
	비아파트	62(50.4)	61(49.6)	123(100.0)		
	전체	150(65.5)	79(34.5)	229(100.0)		

***p<0.00

표 4. 주택유형의 선호 이유

선호이유	선호유형				중복응답: N(%)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편리하다	150(20.7)	12(7.1)	86(22.5)	54(11.9)	
안전하다	101(13.9)	6(3.6)	57(14.9)	19(4.2)	
쾌적하다	43(5.9)	19(11.3)	19(5.0)	33(7.3)	
따뜻하다	104(14.3)	6(3.6)	72(18.8)	22(4.9)	
채광/조망이 좋다	52(7.2)	16(9.5)	27(7.0)	39(8.6)	
부대시설이 많다	56(7.7)	0(0.0)	25(6.5)	5(1.1)	
유지/관리가 쉽다	77(10.6)	8(4.8)	39(10.2)	30(6.6)	
충간소음이 없다	12(1.7)	11(6.5)	5(1.3)	44(9.7)	
관리비가 싸다	18(2.5)	15(8.9)	3(0.8)	41(9.1)	
공동생활이 좋다	53(7.3)	8(4.8)	29(7.6)	17(3.8)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다	4(0.6)	17(10.1)	1(0.3)	46(10.2)	
내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	24(3.3)	29(17.3)	8(2.1)	52(11.5)	
내집같은 생각이 든다	31(4.3)	21(12.5)	12(3.1)	51(11.3)	
합계	725(100.0)	168(100.0)	383(100.0)	453(100.0)	

18) 2008년 1/4분기 전체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414,948원이다(http://www.kosis.kr)

19) ①-매우 불만족한다, ②-불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매우 만족한다

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17.3, 11.5%)’, ‘내 집 같은 생각이 든다(12.5, 11.5%)’,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다(10.1, 10.3%)’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외에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선호이유로 아파트 거주 가구는 ‘쾌적하다(11.3%)’를,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 가구는 ‘편리하다(22.5%)’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현재의 주택유형과 동일한 주택유형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편리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2) 주택규모

조사대상 거주가구의 선호 주택규모를 연령, 성별, 주택 유형 외 배우자 동거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배우자의 동거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규모가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의 주택사용 및 개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부부거주시 전체적으로 45.4%가 ‘66-99 m²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3.3%가 ‘33-66 m² 미만’, 22.8%가 ‘99-132 m²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혼자 거주할 경우 54.8%가 ‘33-66 m² 미만’과 응답하였고, 25.3%가 ‘66-99 m² 미만’, 13.5%가 ‘33 m²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규모 선호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5>. 부부거주시 아파트 거주자는 42.6%가 ‘66-99 m² 미만’, 29.9%가 ‘99-132 m²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자는 48.3%가 ‘66-99 m² 미만’, 29.5%가 ‘33-66 m²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혼자거주시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자(62.5%)가 아파트 거주자(46.8%)보다 ‘33-66 m² 미만’의 규모를 선호하고, 아파트 거주자(33.7%)는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자(17.5%)보다 ‘66-99 m²’의 규모를 선호하였다.

표 5. 성별, 주택유형별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

구분	성별주택유형	N(%)				
		남자	여자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부부거주	33 m ² 미만	5(2.4)	5(2.2)	3(1.4)	7(3.2)	10(2.3)
	33-66 m ²	50(23.9)	52(22.7)	36(16.9)	66(29.5)	102(23.3)
	66-99 m ²	85(40.7)	114(49.8)	91(42.6)	108(48.3)	199(45.4)
	99-132 m ²	55(26.3)	45(19.7)	64(29.9)	36(16.1)	100(22.8)
	132-165 m ²	14(6.7)	13(5.7)	16(9.4)	5(3.3)	26(6.2)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χ ²	4.4(n.s)		25.8***		
혼자거주	33 m ² 미만	36(17.2)	23(10.0)	24(11.3)	35(15.7)	59(13.5)
	33-66 m ²	109(52.2)	131(57.2)	100(46.8)	140(62.5)	240(54.8)
	66-99 m ²	51(24.4)	60(26.2)	72(33.7)	39(17.5)	111(25.3)
	99-132 m ²	13(6.2)	15(6.5)	18(8.5)	10(4.6)	28(6.4)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χ ²	4.9(n.s)		20.6***		

***p<0.00

3) 실의 수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선호 침실수, 여유실수, 욕실수를

조사한 결과, 부부거주시 ‘침실’은 46.6%가 1개 이하, 42.7%가 2개라고 각각 응답하였고, ‘여유실’은 65.1%가 1개, 25.8%가 2개라고 각각 응답하였다. ‘욕실’도 68.9%가 1개 이하, 30.4%가 2개라고 응답하였다. 혼자거주시 ‘침실’은 82.9%가 1개 이하, 15.8%가 2개라고 각각 응답하였고, ‘여분의 방’은 74.2%가 1개로 응답하였다. ‘욕실’은 92.0%가 1개 이하로 응답하였다.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성별과 주택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침실수에 차이를 보였다<표 6>. 성별에 따라서 부부거주시 남성은 2개(47.7%)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만, 여성은 1개(49.7%)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주택유형에 따라 부부거주시 아파트 거주자는 2개(46.7%)를 더 선호하는 반면,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자는 1개(51.5%)를 더 선호하였다.

표 6. 성별주택유형별 노후 생활에 적합한 각 실의 개수

구분		N(%)					
		남자	여자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부부거주	침실수	1	90(43.1)	114(49.7)	88(41.2)	116(51.5)	204(46.6)
		2	99(47.4)	88(38.4)	100(46.7)	87(38.9)	187(42.7)
		3	20(9.6)	27(11.8)	26(12.1)	21(9.6)	47(10.7)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여유실수	0	16(7.7)	11(4.8)	15(7.0)	12(5.4)	27(6.2)
		1	142(67.9)	143(62.4)	133(62.1)	152(67.9)	285(65.1)
		2	44(21.1)	69(30.1)	58(27.1)	55(24.6)	113(25.8)
		3	7(3.3)	6(2.6)	8(3.7)	5(2.3)	13(3.0)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욕실수	1	141(67.5)	161(70.3)	131(61.2)	171(76.4)	302(68.9)
2		67(32.1)	66(28.8)	81(37.9)	52(23.3)	133(30.4)	
3		1(0.5)	2(0.9)	2(0.9)	1(0.1)	3(0.7)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혼자거주	침실수	1	173(82.7)	190(82.9)	174(81.3)	189(83.6)	363(82.9)
		2	33(15.8)	36(15.7)	36(16.8)	33(14.8)	69(15.8)
		3	3(1.4)	3(1.3)	4(1.9)	2(0.1)	6(1.4)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여유실수	0	36(17.2)	37(16.2)	30(14.0)	43(19.2)	73(16.7)
		1	157(75.1)	168(73.4)	158(73.8)	167(74.6)	325(74.2)
		2	12(5.7)	23(10.0)	21(9.8)	14(6.3)	35(8.0)
		3	4(1.9)	1(0.4)	5(2.3)	0(0.0)	5(1.1)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욕실수	1	195(93.3)	208(90.8)	191(89.3)	212(93.9)	403(92.0)
2		14(6.7)	21(9.1)	23(10.8)	12(5.4)	35(8.0)	
전체	209(100.0)	229(100.0)	214(100.0)	224(100.0)	438(100.0)		

4) 여유실의 용도

대부분의 거주가구가 1개 이상의 여분의 방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용도를 살펴보았다<표 7>. 부부거주시 ‘여분의 침실(22.3%)’, ‘가족실(21.8%)’, ‘서재(17.4%)’, 그리고 ‘수납공간/창고(15.1%)’의 순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다. 혼자거주시에는 ‘여분의 침실(23.0%)’과 ‘가족실(22.4%)’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과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부거주시 남성은 '서재(22.3%)', '가족실(20.5%)', '여분의 침실(20.1%)'의 순으로 여성은 '여분의 침실(24.3%)', '가족실(23.0%)', '수납공간/창고(1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혼자거주시 남성은 '가족실(23.0%)', '여분의 침실(20.1%)', '서재(18.5%)', 그리고 '수납공간/창고(14.7%)'순으로 응답하였고, 여자는 '여분의 침실(25.7%)', '가족실(21.9%)', '수납공간/창고(14.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부거주시 아파트 거주자는 '여분의 침실(21.1%)', '서재(20.5%)', '가족실(17.6%)', '수납공간/창고(15.6%)'의 순으로,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자는 '가족실(25.7%)', '여분의 침실(23.2%)', '수납공간/창고(14.6%)', '서재(14.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혼자거주시 아파트 거주자는 '여분의 침실(22.9%)', '가족실(20.2%)', '수납공간/창고(16.1%)', '서재(15.5%)'순으로, 비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족실(24.8%)', '여분의 침실(23.2%)', '서재(14.0%)', '수납공간/창고(13.0%)'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 성별, 주택유형별 여분의 방사용 용도
중복응답: N(%)

구분	성별/주택유형	남자	여자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부부거주	수납공간/창고	55(12.3)	85(17.6)	69(15.6)	71(14.6)	140(15.1)
	서재	100(22.3)	62(12.9)	91(20.5)	71(14.6)	162(17.4)
	가족실	92(20.5)	111(23.0)	78(17.6)	125(25.7)	203(21.8)
	용접실	47(10.5)	54(11.2)	48(10.8)	53(10.9)	101(10.9)
	취미활동공간	64(14.3)	53(11.0)	63(14.2)	54(11.1)	117(12.6)
	여분의 침실	90(20.1)	117(24.3)	94(21.2)	113(23.2)	207(22.3)
	전체	448(100.0)	482(100.0)	443(100.0)	487(100.0)	930(100.0)
혼자거주	수납공간/창고	46(14.7)	50(14.6)	55(16.1)	41(13.0)	96(14.6)
	서재	58(18.5)	39(11.4)	53(15.5)	44(14.0)	97(14.8)
	가족실	72(23.0)	75(21.9)	69(20.2)	78(24.8)	147(22.4)
	용접실	34(10.9)	40(11.7)	38(11.1)	36(11.4)	74(11.3)
	취미활동공간	40(12.8)	51(14.9)	48(14.1)	43(13.7)	91(13.9)
	여분의 침실	63(20.1)	88(25.7)	78(22.9)	73(23.2)	151(23.0)
	전체	313(100.0)	343(100.0)	341(100.0)	315(100.0)	656(100.0)

3. 각 실 개조요구

노인가구의 주택의 각 공간별 개조요구를 연령, 주택유형,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택 내 각 공간은 '거실', '침실', '주방', '식사공간', '욕실', '화장실', 그리고 '현관'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에서 개조를 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²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거실

거실에서 개조요구<그림 2>가 높은 항목은 '난방시설 추가·설치(M=3.2)'였다. 난방시설의 개조에 대한 요구는 노화로 인한 열환경 감각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성별과 주택유형에 따라서 개조요구가 높아지는 집단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 '콘센트 추가·설치(p<0.05)'에 대하여 여성의 평균(M=3.1)이 남성(M=2.9)보다 높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여성이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유형에 따라 '조명기구 추가·설치'에 대하여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평균(M=3.1)이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2) 침실

침실에서 개조요구<그림 3>가 높은 항목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난방시설 추가/설치(M=3.1)'였다.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콘센트 추가·설치(M=3.0)와 '조명기구 추가·설치(M=3.0)에 대한평균이 보통(M=3.0) 이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스위치/조절장치 리모컨 설치에 대한 남성의 평균(M=2.8)이 여성(M=2.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보통(3.0) 이하의 요구 수준을 보였다.

3) 주방

주방에서 개조요구<그림 4>가 높은 항목은 '환기설비 추가·설치(M=3.3)', '수납공간 추가·설치(M=3.1)'였다.

연령에 따라 75세 이상 집단의 '바닥에 미끄럼방지타일 설치' 요구가 3.0 이상으로 높았다(p<0.05).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환기설비 추가·설치'와 '수납공간 추가·설치'에 대하여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평균(M=3.4, 3.2)이 아파트 거주가구(M=3.2, 3.0)보다 높았다(p<0.05).

4) 욕실

욕실에서 개조요구<그림 5>가 높은 항목은 '바닥에 미끄럼방지타일 설치(M=3.4)'와 '환기설비 추가·설치(M=3.3)'였다.

성별에 따라 '욕조주위 안전손잡이 설치(M=3.1)'에 대하여 남성의 평균(M=3.0)이 여성(M=2.8)보다 높았다(p<0.05).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욕실/화장실 면적넓힘(아파트: M=2.6, 비아파트: M=3.0; p<0.00)'과 '난방설비 추가·설치(아파트: M=2.7, 비아파트: M=3.0; p<0.05)'에 대하여 아파트 이외 주택 거주가구의 평균이 아파트 거주가구의 평균보다 높았다.

5) 현관

현관에서 개조요구가 높은 항목<그림 6>은 '조작하기 쉬운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M=3.6)', '바닥에 미끄럼방지타일 설치(M=3.3)', '실내로 외풍 방지 설치(M=3.2)', 그리고 '수납공간 추가·설치(M=3.1)'였다.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거주가구의 '조작하기 쉬운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M=3.5)와 '바닥에 미끄러움 방지 타일 설치(M=3.4)'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명기구 추가·설치(M=3.1)와 '출입문 자동닫힘 설치(M=3.1)'의 평균이 3.0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개조 요구를 보였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는 '조작하기 쉬운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M=3.6)', '실내로 외풍 방지 설치(M=3.4)', '바닥에 미끄럼방지타일 설치(M=3.3)' 외에 '수납공간 추가·설치(M=3.1)', '현관 면적 넓힘(M=3.0)'의 평균이 보

20)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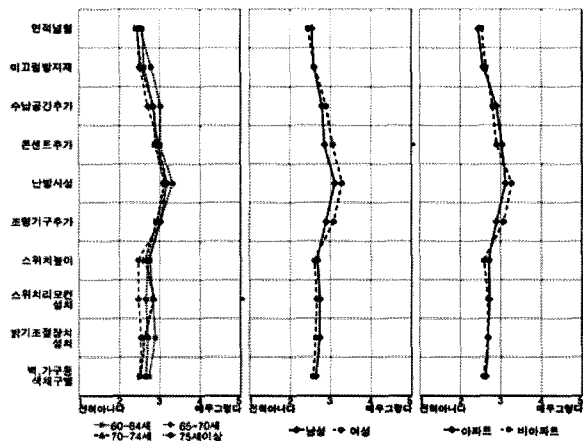


그림 2. 거실에 대한 개조 요구 (*p<0.05 **p<0.01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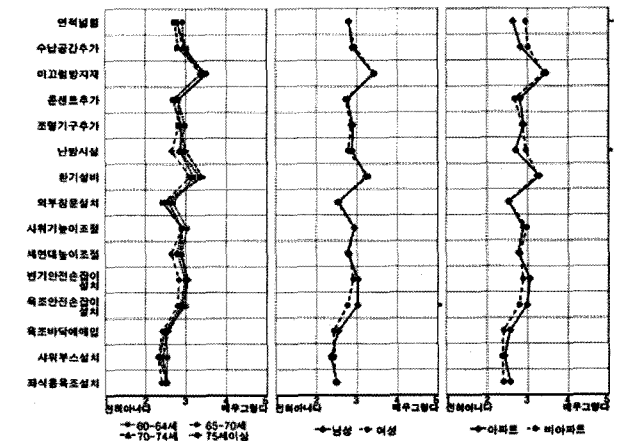


그림 5. 욕실/화장실에 대한 개조 요구 (*p<0.05 **p<0.01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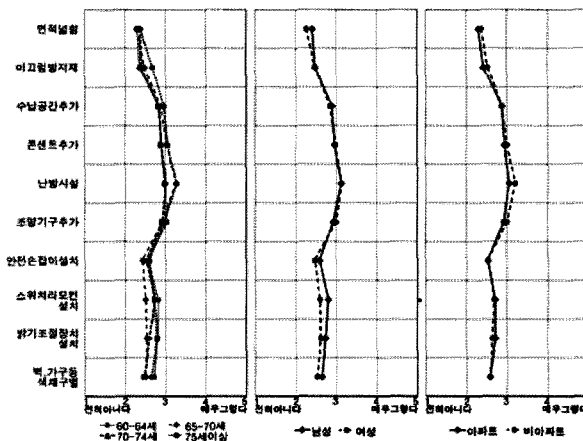


그림 3. 침실에 대한 개조 요구 (*p<0.05 **p<0.01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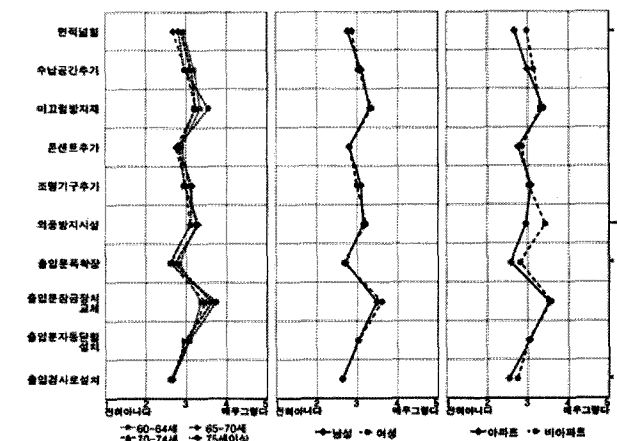


그림 6. 현관에 대한 개조 요구 (*p<0.05 **p<0.01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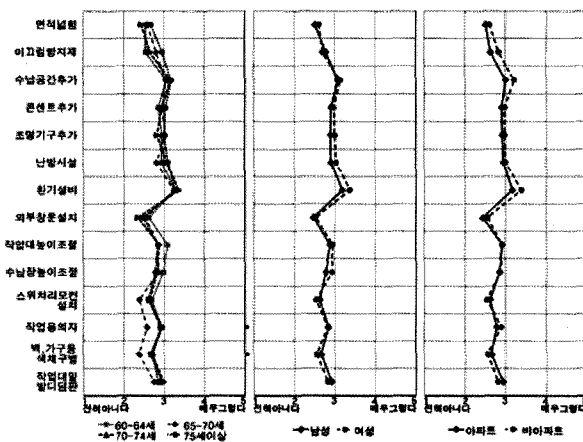


그림 4. 주방에 대한 개조 요구 (*p<0.05 **p<0.01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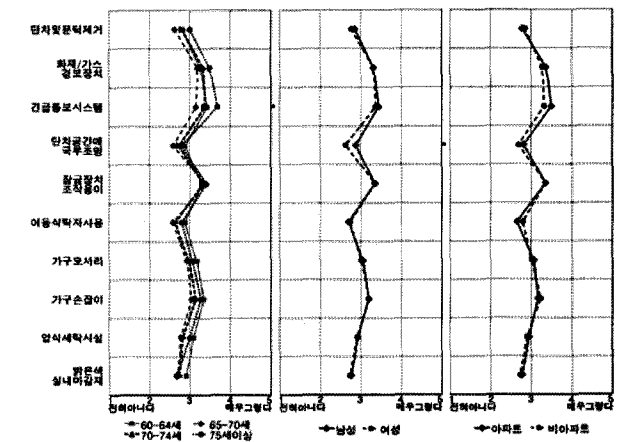


그림 7. 기타 개조 요구 (*p<0.05 **p<0.01 ***p<0.00)

통 이상으로 높았다. 다른 공간과 비교하여 면적과 출입구 등 현관에 대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개조요구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6) 기타

기타 사항으로 개조요구가 높은 항목<그림 7>은 ‘긴급통보시스템 설치(M=3.4)’,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 잠금장

치 설치(M=3.3),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M=3.3)’, ‘손잡이가 편한 가구(서랍장) 사용(M=3.2)’ 그리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는 가구 사용(M=3.2)’였다. ‘긴급통보시스템 설치’의 개조요구는 연령 따라 유의적 차이(0.00)를 보여 70세 이상 가구의 평균(70-74세: M=3.4, 75세이상: M=3.7)이 높았다.

IV. 결론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부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자기가 생활하던 곳에서 독립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구가 오랫동안 거주해 온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주거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주거요구는 주거만족도, 주거선호, 주택 개조요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노인의 연령, 성별, 그리고 거주 주택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 거주자는 대부분 무직으로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만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1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다. 반면, 자가 비율이 높아 현 주택에서 향후 지속적 거주가 가능성이 높은 집이다.

둘째, 조사대상 노인가구는 현 주택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고 지속적인 거주에 대한 요구도 높다. 특히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 및 계속 거주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는 아파트 보급률의 증가와 공동의 시설 및 설비 수준이 향상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공간별로는 침실(방)과 거실(마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주방과 다용도실의 만족도가 낮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여성의 주방과 현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주방,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현관의 만족도가 보통이하로 낮다. 아파트와 비교하여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거실과 침실을 제외한 각 공간의 시설이나 설비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비율은 3:2 정도이다. 현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거주가구와 여성이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 아파트의 선호 이유는 편리함, 따뜻함, 안전함, 유지·관리 용이함으로, 아파트 이외의 주택 선호 이유는 개인화, 내 집이라는 생각, 애완동물 사육, 쾌적함이다. 특히, 현 주택유형과 동일한 주택유형의 선호 이유로서 편리함을 선택한 것은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익숙함이 주거선호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준다.

선호하는 주택규모의 범위는 배우자 동거시 33-132 m², 혼자거주시 33 m² 미만과 33-99 m²으로 특징지어지고, 절반 정도의 거주가구가 부부거주시 66-99 m², 혼자거주시 33-66 m² 규모를 선호한다.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는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아파트 거주가구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보다 부부거주시 99-132 m², 혼자거주시 66-99 m² 규모에 대한 선호가 높다.

필요 실 수로 부부거주시 침실 1~2개, 여분의 방 1~2개, 욕실 1~2개, 혼자거주시 침실 1개, 여분의 방 1개, 욕실 1개를 선호한다. 여유실 용도로 여분의 침실과 가족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응접실 및 취미실에 대한 요

구가 가장 낮아, 격식을 갖추지 않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요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여유실 용도는 성별과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남성의 서재, 여성의 수납공간, 아파트 거주가구의 서재,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거주가구의 수납공간에 대한 선호로 차별화된다.

넷째, 주택 내 각 공간에 대한 개조요구로 거실과 침실의 난방시설 추가·설치, 주방의 환기설비 추가·설치와 수납공간 추가·설치, 욕실/화장실의 바닥 미끄럼방지타일 설치와 환기설비추가·설치, 현관의 조작하기 쉬운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미끄럼방지타일 설치, 외풍 방지 설치, 수납공간 추가/설치,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 잠금장치 설치,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 손잡이가 편한 가구(서랍장) 사용,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가구 사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끄럼방지타일,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 대한 개조요구가 높다. 성별에 따라 생활시간과 안전의식에 차이로 여성은 거실과 침실의 콘센트 추가·설치, 조명시설 추가·설치, 주방의 환기시설, 그리고 수납공간 등 주로 편리성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개조 요구가 높은 반면, 남성은 안전손잡이 등 안전성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개조요구가 높다.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서는 난방설비, 환기설비, 외풍방지시설 등 기본적인 설비 및 시설, 주방과 현관의 수납공간, 그리고 욕실과 현관의 면적에 대한 개조요구가 높다.

이상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요구 특성을 거주자의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지속적인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 거주자의 연령, 성별, 주택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배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그림 8>. 노인가구는 기본적으로 66-99 m² 내외의 주택규모와 난방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구성의 개조와 설비계획이 필요하다. 각 방은 1~2개의 침실과 여분의 방으로 구성 하되, 상황에 따라 여분의 침실, 가족실, 서재, 수납공간 등 격식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는 환기뿐 아니라 개방적인 내부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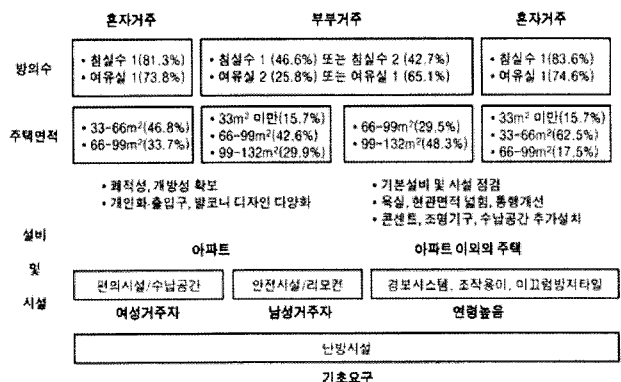


그림 8. 노인가구의 주거요구 특성

을 통해 쾌적성을 확보하고, 개인화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발코니 부분의 디자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기본적인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욕실과 출입공간의 면적과 통행의 편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기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은 연령의 증가와 성별에 따라 요구가 다양하므로 설치 및 공급방식을 고려하여 기본시설과 선택사양 형식으로 구분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권오정(1996), 서울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단독가구의 주거 조절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예술논문집, 19.
2. 김승희(2004), 일본 노인세대의 주택개보수 사례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3. 김행신·이영호(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4. 박수빈(2007), 중·노년층의 요구 분석에 의한 노년기 주거 디자인의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5), 49-58.
5. 서희숙(2002),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오찬욱(1990),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본 노인주거 모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이지숙(2004), 대전시 거주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6), 61-68.
8. 이지숙(2005), 노인의 연령 및 주거유형별 주택내 각 실의 불편사항,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6), 47-54.
9. 이태경(2004), 예비노인의 노후 상황별 노인주거단지 선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최명규(200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9), 29-38.
11.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2005), 노인가구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 방안 연구.
12.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2007),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전문가용).
13. 대한주택공사(2006), 고령사회 주거지침 종합대책.
14.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접수일(2009. 8. 21)

수정일(1차: 2009. 9. 28, 2차: 10. 15)

게재확정일자(2009. 10. 21)